

광주 양궁 3형제, 소년체전서 ‘금빛 과녁’ 겨룬다

체육중 조여준, 삼정초 유준·담준 군 광주 대표선수로 나란히 선발
매일 양궁 얘기하며 왁자지껄...올림픽 국가대표 꿈꾸며 함께 성장

광주에서 삼형제가 나란히 전국소년체전 광주시 양궁 대표선수로 선발돼 화제다.

조여준(15·광주체중), 조유준(13·삼정초), 조담준(13·삼정초) 삼형제가 그 주인공.

이들 삼형제는 지난 3월 광주여대 양궁장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 선발 양궁 예선 대회'에서 나란히 광주시를 대표하는 양궁 선수로 선발됐다. 시 대표로는 초·중등부 각 8명씩(남·녀 각 4명) 16명이 뽑혔다.

여준 군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양궁을 시작했다. 양궁 특기 초등학교인 삼정초를 다니던 중 양궁부에서 활동하는 친구가 간식을 받는 모습을 보고 부러운 마음에 시작하게 된 것.

여준군은 “간식에 이끌려 시작하게 됐지만 사신에 서서 과녁을 향해 줄을 당기고, 화살이 공기를 가르고 나아가 과녁에 박히는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며 “잘 쏜 화살은 과녁 안으로 들어갈 거란 느낌이 온다. 무엇보다 10점에 박힌 화살을 보면 기분이 좋다”고 웃어보였다.

쌍둥이 유준, 담준군은 형 여준군을 보며 양궁에 대한 동경을 키웠다. 형의 모든 게 다 멋있어 보이는 어린 나이지만 양궁은 뭔가 달랐다. 양궁 시작 후 고무줄 당기기만 1년, 어린 쌍둥이 형제가 할도 잡지 못하고 고무줄만 당기는 긴 시간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염려했던 부모의 생각과 다르게 유준·담준군은 진입 장벽을 넘어서고 기본기 탄탄한 궁사가 됐다.

아버지 조세영씨는 “스포츠는 빛을 보지 않으면 불안정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양궁을 배우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걱정됐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체중에 입학한 여준군은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교내 양궁장에서 연습에만 매진한다. 때문에 가느다랗고 고왔던 손은 굳은살이 잔뜩 배긴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바뀌었다. 매일 밤이면 어깨와 발바닥 통증을 호소해 아버지 조세영씨가 밤새 주물러 줘야 한다.

‘양궁’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삼형제는 대회를 앞두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한다.

여준군은 “동생들이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면 뿌듯하다. 내 동생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도 든다”며 웃어보였다. 그러면서 “동생들에게 자세를 알려주거나 경기 중 지켜야 할 예의 등을 아낌없이 공유한다”고 말했다.

여는 또래처럼 게임을 좋아하고, 유튜브 시청도 하지만 저녁시간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면 왁자지껄 양궁 이야기가 시작된다. 식사 도중 “나 오늘 도킹(과녁에 박힌 화살 위로 화살을 쏘는 것) 했어”라고 삼형제 중 한명이 운을 떼면 너도나도 양궁 연습 중 생긴 에피소드를 풀어낸다.

여준군은 자신과 자세와 비슷한 최두희를, 유준·담준군은 파리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을 가장 좋아한다.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 씨인도 집에 소중하게 보관하며 올림픽 국가대표의 꿈을 키우고 있다.

조씨는 “아이들이 양궁을 배우는데 현대차의 후원이 많은 힘이 되었다. 앞으로도 어떤 대회에서든지 노력한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시 대표로 선발된 (왼쪽부터)조여준, 담준, 여준.



24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박주봉 감독과 선수들이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수디르만컵) 출전을 위해 출국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봉 대표팀 감독 “30년만에 돌아와 진천선수촌 보니 뭉클”

배드민턴 수디르만컵 출전
“복식조 경쟁력 키우겠다”

“진천선수촌 배드민턴 경기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가슴 한쪽에 뭉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가 우리나라 배드민턴의 산실이구나.”

박주봉 국가대표팀 감독은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만난 취재진 앞에서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지나 한국 배드민턴으로 돌아왔음을 느끼고 벅찼던 마음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달 초 선임된 박 감독이 우리나라 언론과 만나 속내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감독은 “내가 일본에서 20년 감독을 했고, 영국과 말레이시아까지 합치면 거의 29년 만에 귀국했다. 물론 가족을 보러 오긴 했으나 (외국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있었다”고 밝혔다.

취재진 앞에 서는 게 어색하다는 박 감독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감독직을 맡게 돼 걱정과 부담이 있었다”며 “감독 선임이 난항을 겪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한 번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전에 한, 두 번 기회가 있었지만 시기가 맞지 않았다”며 “후배들이 했으면 좋겠

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하지 못하면 후배들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도자 경력을) 그만두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마음이 복잡했다”고 털어놨다.

1964년생인 박 감독은 이번 한국 대표팀 사령탑이 지도자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마지막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한국 대표팀 감독이 돼서 감사다”라며 “안세영 선수를 비롯해 김원호, 서승재 선수 등 그간 정말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들이 있다. 대표팀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김학균 전 감독과 지난해 말 결별한 뒤 줄곧 사령탑이 공석이었다가 협회가 지난 4월 박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면서 수장을 찾았다. 그는 2026년까지 대표팀을 지도한다.

박 감독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남자 복식 금메달,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는 혼합 복식 은메달을 한국에 안긴 ‘배드민턴 전설’이다. 배드민턴은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따라서 박 감독은 ‘최초의 올림픽 배드민턴 남자복식 금메달리스트’로 종목 역사에 기록됐다.

박 감독의 한국 사령탑 데뷔 무대는 27일부터 중국 사면에서 열리는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

(수디르만컵)다.

선수단을 이끌고 출국길에 나선 박 감독은 “선수들 컨디션을 확인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연습과 경기는 다르다”며 “경기 수를 놓고 (선수들)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승재, 김원호 선수도 전염오염에서 우승했는데, 이후 아시아선수권대회 성적이 좋지 않았다. 3월에 대회를 다녀오고, 직후 또 국내 대회를 소화해서 일정이 강행군이 됐다”며 “완전한 컨디션이 돌아올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드민턴 복식의 역사를 쓴 박 감독은 대표팀 복식조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구상 중이라 한다.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공희용(전북은행)-김혜정(삼성생명) 등 주요 복식 조를 언급한 박 감독은 “이런 톱 선수들의 랭킹은 올라와 있는데, 그 밑으로 중간과 아랫부분은 랭킹이 많이 쳐진다”며 “그래서 슈퍼 1000과 같은 최상위급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다른 나라보다 조금 적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단식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간 수준의 선수들의 랭킹을 빨리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신소망·고승환·이재성, 육상 국대 선발

5월 27~31일 구미아시아육상선수권 출전

오는 5월 열리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광주·전남 선수들이 최종 선발됐다.

23일까지 3일간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신소망(나주시청)이 여자부 800m에서 2분7초28 기록으로 1위에 오르며 대표 선발 영예를 안았다.

광주에서는 고승환(광주시청)과 이재성(광주시청)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고승환은 최종선발전에서 200m 남자부 경기에서 21초28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승환은 200m, 400m 릴레이 종목에, 이재성은 400m 릴레이에 참가한다.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은 대회 최종선발전에서 1등을 하거나 올해 1월부터 최종선발 전까지의 경기 성적을 합산해 대한육상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거쳐 성적이 좋은 선수에게 돌아간다. 각 종목별로 2명씩 출전 자격을 얻는다.



광주시청 이재성(왼쪽)과 고승환이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을 마치고 환하게 웃어보고 있다.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한편 오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구미시민운동장에서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린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2025시즌 돌입...양궁 종별선수권 예천서 열전

파리 10연패 주역 남수현 등 출전

2025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양궁 대회인 제59회 전국 남·여 양궁 종별선수권대회가 내달 2일까지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온 1400여 명의 선수들이 한데 모여 개막전 우승을 향한 경쟁을 펼친다.

24일 초등부를 시작으로 부별 순차적으로 대회를 소화하는 가운데 전·현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동하는 대학부 및 일반부 경기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치러진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컴파운드에서는 올해부터 초등부 경

기가 신설됐다.

지난 제58회 대회에서는 2025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 4위에 이름을 올린 서민기(국군체육부대)가 일반부 남자부 4관왕을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고, 여자 일반부에서는 전인아(전북도청)가 치열한 접전 끝에 종합 1위를 거머쥔 바 있다.

이번 대회에는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단체전 10연패의 주역인 전훈영(인천시청), 남수현(순천시청) 등 다수의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출전한다.

내달 6~11일 열리는 2025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집중 훈련에 돌입함에 따라 이번 종별선수권에는 불참한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04월 19일(토) 13:30, 15:00 / ACC 상상마당

-06월 07일(토) 13:30, 15:00 / 푸른길공원

-06월 14일(토) 13:30, 15:00 / 양산호수공원

문의 : 062-526-0363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GAC 공모전시

자연은 그렇다 환경은 그렇지 않다 : 추순정 개인전

일시 : 2025-3-28(금)~2025-4-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